

# 진흥회 활동

## 전자산업종합정보서비스 본격개시



한국전자산업진흥회 업계의 실질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3개년 계획으로 추진해온 『전자산업 종합정보서비스(EIAK-INS)』 구축사업을 완료, 3월 7일 회원사 및 관련기관 대표들이 보는 가운데 본격서비스에 돌입 했다.

'95년 부터 3개년에 걸쳐 11억 7천만원과 연인원 1만여명을 투입해 이날 개통된 시스템(EIAK-INS)에는 전자산업에 관한 국내외 정책, 품목별 생산, 수출, 내수 등의 시장 및 기술정보, 국산 전자부품의 규격 및 특성 등 모두 13개 분야에 걸쳐 15000여건의 정보가 수록되어 KT의 HINET-P를 통해 전국 어디서나 PC로 기업들이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되었다.

진흥회는 계속해서 이 시스템을 보강해 나가기 위해 금년에도 약 5억원을 투입해 국내외 관련 DB와 연동시켜 질적, 양적으로 정보DB를 충실히하는 한



편 실수요자인 관련기업들로 하여금 시스템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용실태를 모니터링하고 계몽교육을 강화해 나가면서 장차 Web Server를 구축, 현재의 문자정보를 화상정보시스템으로 고도화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진흥회는 이를 통해 업체마다 정보획득에 필요한 많은 예산과 인력을 절감할 수 있고, 특히 정보획득에 취약한 중소 중견기업들도 기술, 시장 등의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획득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진흥회는 이시스템을 통해 바이어 및 국내 고객들에게 좋은 상품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수출증대 및 내수확대에도 기여하게 될 것으로 내다 보고 있다.

그뿐 아니라 진흥회로서도 최소의 인력과 예산을 투입해 회원사와 정부에 대한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향상시켜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에너지비용 표시제도 도입관련 대책회의

본회 가전과에서는 지난 3월 17일 본회대회의실에서 대우전자, LG전자, 삼성전자 등 업계 관련자들이 보인 가운데 에너지비용 표시제도 도입 관련 대책회의를 개최하였다.

지금현재 정부는 소비자에게 에너지비용정보를 제공하고 절전형 제품의 개발 및 보급확대 유도를 위해 냉장고와 에어컨에 에너지 비용 표시제도 도입을 검토중이다.

이에 우리가전업계에서는 냉장고 및 에어컨의 경우 이미 에너지 효율등급을 표시하고 있으며 이로인해 국내제품의 절전기술은 세계 수준에 도달한 상태이며 이러한 상태에서의 에너지비용 표시제도의 도입은 또다른 규제로 정부의 행정규제 완화정책 방향과도 크게 배치되고 있다.

이에 따라 소비자의 구매욕구를 저하시키므로써 내수침체를 더욱 가속화 시킬 우려가 클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동제도는 가전업계에 부담을 가중시키는 제도인 만큼 철회 되거나 개선되어야 하며 차기방안으로는 에너지 표시제도를 시행할 경우 에너지 효율표시 규정을 없애고 동제도로 단일화 해야 한다.

이를 위해 97. 3. 19(수)오전까지 각사의 의견을 진흥회로 송부하고 진흥회는 이를 취합, 금주내로 정부에 전달키로 하고 향후에는 에너지 관리과 등 관계자를 방문, 가전업계의 애로사항을 전달하는 등의 대책을 수립하였다.

## 가전제품 수입급증에 따른 대책회의

본회 가전과에서는 지난 3월 19일 본회 대회의실에서 LG전자, 삼성전자, 대우전자, 통산부, 본회 관계자가 모인 가운데 가전제품 수입급증에 따른 대책회의를 개최하였다.

가전제품 수입급증의 현황과 문제점으로는 ① 수

입품의 80%가 25" 이상의 대형 TV로서 저가형으로 멕시코에서 조립된 SONY 제품이 미국으로부터 주로 수입되고 있으며

② 외국의 대형 유통점의 진출 확산과 국내 대형 할인점의 출점 가속화에다 일부 고소득층의 과소비 풍조, 외제 선호의식이 맞물려 수입이 급증하고 있다.

③ 실제 성능과 품질면에서 국산이 우수함에도 브랜드 이미지만 내세워 소비자의 선택을 호도

— 음성다중 기능이 가능한 것으로 표시되고 있으나 실제로는 불가

— 국내에서 형식검증을 위해 전원장치 개조 과정에서 품질의 불안정 요소 존재로 안전규격에 문제가 있다.

④ A/S, 폐기물처리 등의 소비자 대책도 강구되지 않은채 대형 종합무역상사, 영세 수입상 등 80여 개사가 경쟁적으로 수입하고 있다.

⑤ 대형 TV(34" 이상)는 우리나라가 산업화 초기단계인 관계로 가격경쟁력면에서도 열세를 보여 이 상태가 확산되면 국내 TV산업 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크다.

— 29"의 경우는 가격경쟁력이 있으나 34" 이상은 열세이다.

• 29" : 국산제품 : 65만원선, SONY제품 : 68~72만원

• 34" : 국산제품 : 190~200만원, SONY제품 : 30~150만원

이러한 현황의 대책으로

① 대정부 건의

— 통상산업부 : C-TV 수입 억제를 위한 종합 대책을 수립하여 건의하고 통상산업부는 이를 관련부처에 협조 요청

— 재정경제원 :

• 특소세 부과기준 개선

수입품의 경우 수입업자의 마진, 영업비용 등이 포함되지 않은 가격에 특소세가 부과되고 있어 이를 개선토록 건의

• 가전제품에 대한 관세율 인상 요청

- 환경부 :
  - 폐가전제품의 회수, 처리체계가 미구축된 수입품에 대해서는 예치금의 요율 차등부과 방안 및 부담금으로 전환토록 건의
- 관세청 :
  - 불법 수입제품의 단속 강화
  - 세관의 통관 검사 강화
    - : 형식승인 미취득, 표시사항 위반, 수입품 신고가격등
- 국립기술품질원 :
  - 형식검정의 사후관리 강화
- ② 업계 공동의 대응책 강구
  - 방송 등을 통해 소비자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제공
    - 품질, 성능 비교 정보
    - A/S 폐기물처리 등 소비자 이용상의 불편
  - 주관 방송 : 1차로 KBS를 대상으로 함
  - 품질 비교평가 의뢰 기관 : 소비자보호원을 우선대상으로 하고 여의치 않을 경우 국립기술품질원에 의뢰
  - 각사 업무 분담을 통해 적극적인 대응을 하기로 하였다.

## 가전제품, 환경 및 재활용 사전평가결과

본회가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가전제품 환경 및 재활용 사전평가심의회를 개최한 결과 지난 1년동안 가전업계는 환경 및 재활용 사전평가제도를 통해 평균적으로 무게는 3.4%감량, 부품은 12개감축, 포장지 5.8%축소, 소비전력 3.5% 개선 등의 성과가 나타나 이제 동 제도가 자리를 잡아 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전제품의 환경 및 재활용 사전평가제도는 제조업체가 제품의 개발, 생산 단계에서부터 환경 및 재활용을 고려해 개발, 생산하기 위해 환경부, 통상산업부의 통합 지침에 따라 분해 분리의 용이성, 재활용 가능 부품사용 여부, 부피와 중량의 축소, 포장 및 포장 완충재 감축, 폐기물처리정보의 제공, 유해

유독물질 사용여부, 소비전력의 개선 등 모두 13개항에 대해 생산업체 스스로 사전에 이를 평가한 후 그 결과를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회에서 확인하는 제도이다.

가전업계는 올해로 3년째 C-TV, 냉장고, 세탁기 등 3개 품목에 대해 동 제도를 시행해 왔으며 금년에는 C-TV 8개 모델, 세탁기 8개 모델, 냉장고 6개 모델 등 모두 22개 모델에 대해 동 제도를 시행하였다.

품목별로 보면 C-TV의 경우 지난해 모델에 비해 부품 사용은 평균 14개를 줄이고, 포장재는 2.1%를 감축했으며 포장 완충재는 3.08%를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탁기는 무게를 평균 5.09% 감량했고, 부품 사용수는 6개를 줄이고 포장재는 6.4%, 포장완충재는 11.74%를 각각 감축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냉장고는 무게를 6.0% 감량하고 부품수는 19개를 줄였고 포장재는 9.96%, 포장완충재는 2.5%를 각각 줄였으며 소비전력 감소율은 평균 3.5%로 나타났다.

TV의 경우, 높이는 낮아지고 폭은 증대되어 체적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소비자의 디자인성향에 대처하여 부품의 최적공간 설치라든가 Control부위 및 전면단자부위를 착탈방식으로 변경하는 등 부품 ASSY화를 적극 채용하고 있다. 또 PCB를 제외한 모든 부품은 일반 표준 공구로 분해할 수 있도록 재활용 용이성을 제고하였다.

세탁기, 냉장고는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이용하여 체적 및 포장재를 최소화 설계하는 등 감량·재활용 효과에 크게 기여하였다. 특히 환경마크를 취득한 Non-CFC냉장고 등 환경친화제품들이 선보여 심의회 참석자들의 시선이 집중되기도 하였다.

또한 제품 및 사용설명서에는 소비자와 재활용업체를 대상으로 제품 폐기 방법에 관한 정보를 제공함과 더불어 각사 판매망을 통한 회수 및 재활용 체계를 구축하고 있어 소비자의 혼돈과 불만을 해소토록 하였다. 그러나 평가내용중 재생재료 사용 확대 여부에 관해서는 그 실적이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 재생재료 사용기술 개발에 노력토록 지

적받기도 하였다.

전자산업진흥회에서는 금년 하반기 중 세미나를 통한 평가 개선사례 발표 등 정보공유촉진 업무와 동 제도 시행 중간 점검을 위한 현장 조사를 병행 실시하는 등 재활용평가제도의 활성화에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 정보산업관련제품 정부구매제도 개선 건의

본회 정보산업과에서는 정보산업이 기술발전 속도가 빠르고 그 규모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첨단 유망 분야이나 기술 및 자본 등의 기반이 매우 취약하며 내수 의존도가 큰 산업 분야로 내수시장 비중 및 시장에 대한 영향력이 큰 정부, 정부투자기관에서 정보산업 관련 제품의 구매 및 용역시 제품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공산품과 동일한 최저가 경쟁낙찰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입찰 예정가격 결정에 따른 거래 실패가격 적용시 무형의 비용(로얄티, 사후관리비)이 고려되지 않고 결정되고 있는 실정임에 따라, 정보산업관련제품에 대해 정부 구매제도를 개선해 줄 것을 건의하였다.

현정부 구매 제도는 업체간 과당 경쟁으로 가격질서 혼란과 유통체제를 왜곡시키고 있으며 업계 경영의 부실화 및 기술개발 투자 여력 상실 등으로 산업체질 약화가 초래됨에 따라 무리한 저가 낙찰에 의해 품질 및 A/S 등의 어려움 및 계약이행의 부실화로 인해 정부 및 정부 투자기관의 정보화 추진에 차질은 물론 정부 재원낭비를 초래할 우려가 있음에 현행 일반경쟁입찰방식을 지명경쟁 등 제한 경쟁입찰 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따른 개선건의 내용으로는

가. 적정 보상이 가능한 예정가격의 결정(행정 개선 사항)

### 1) 관련 규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예정가격의 기준)

### 2) 개선 건의 내용

정부 및 정부 투자기관의 컴퓨터 관련 제품의 구매 또는 용역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을 위한 거래실패 가격 산정시 무형의 비용(로얄티, 사후관리비)에 대한 부분을 반영하여 줄 것을 요망하였다.

나. 입찰방법의 탄력적 적용(행정 개선 사항)

### 1) 관련 규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계약의 방법)
- 동법시행령 제21조(제한경쟁 입찰에 의한 계약과 제한사항)
- 동법시행령 제23조(지명경쟁입찰에 의한 계약)

### 2) 개선 건의 내용

정부 및 정부 투자기관이 컴퓨터 구매시 일반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일반경쟁입찰방식을 지양하고 대신에 계약의 목적 및 특성에 따라 입찰업체의 기술성, 사후관리능력, 공급능력 등을 고려하여 제한경쟁, 지명경쟁 입찰방식 등을 탄력적으로 활용하여 줄 것을 요망하였다.

다. 낙찰자 결정방법의 합리적인 개선(제도개선 사항)

### 1) 관련 규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 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 2) 개선 건의 내용

정부 및 정부 투자기관이 정보산업 관련 제품 및 컴퓨터프로그램을 경쟁입찰을 통해 구매, 용역코자 할 때 지금까지 적용하여 온 최저가 낙찰방식 대신에 동 제품의 특성을 반영하고 계약내용의 실효성도 보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최고와 최저 응찰가를 제외한 나머지 응찰가격의 평균가격 이하의 가격 중 최고가를 제시한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토록 할 것을 건의하였다.

진흥회는 이같은 건의 내용을 지난 80년대 후반부터 여러 차례 관계기관에 제출했으나 아직까지 개선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용산상가 내 컴퓨터 유통업체의 부도가 속출하고 정부구매에 대

한 기업들의 입찰기피 등으로 컴퓨터 등 기술집약형 산업의 기반이 약화되고 있어 다시 건의서를 제출하게 되었다.

### 진흥회, 국제 계측제어기기전 개최

본회는 낙후된 계측제어기기 산업을 육성하고 제조업계의 공정 고도화를 촉진,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대한 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함께 오는 9월(22~25) 한국종합전시장(KOEX)에서 국내외의 140여 전문 업체가 참가한 가운데 '97 서울 국제 계측제어기기전을 개최하기로 하였다.

진흥회가 올해 이 전시회를 개최하게 된 것은 계측제어기기 산업이 그 나라 과학 기술 수준의 척도로 이용될 만큼 전형적인 기술집약 산업이면서 세계시장도 '96년 688억불(표 #1 참조)에 이르고 있어 매우 유망한 산업 임에도, 우리나라는 초기부터 국내시장을 외국 업체들이 장악(국내 시장의 수입 의존도 96.5%)하고 있어 국내 업체들은 수출 주도(생산대 수출비율 77.1%)로 생산을 해 왔으나 최근 가격 경쟁력 약화로 이 분야에 연간 무역수지 적자

가 8억불을 넘어서게 됨에 따라 계측제어기기 산업 육성이 시급해진 데서 비롯 되었다.

한편 이번 전시회는 최근 우리 제조업이 고비용 저효율 생산체제를 극복 하기 위해 품질향상과 공정 및 고도화를 촉진코자 함에 따라 이에 필요한 국내외의 전문 계측제어 업계의 제품 및 기술 정보를 공급함으로써 전시회를 통해 궁극적으로 제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전시회는 KOTRA가 외국의 바이어 및 전문 계측제어 업체를 유치하고 진흥회는 국내 계측제어기기 업체와 수요업체의 참가를 유도하는 한편 계측기기연구조합과 협력해 정밀 계측 기술에 관한 세미나도 부대 행사로 개최할 계획이다.

그런데 계측제어기기 산업은 다품종 소량의 생산 특성으로 인하여 정책적으로는 연구개발 자금의 지원 확대와 전문기술 인력의 원활한 공급, 국산불가 부품의 관세율 인하 등이 요구되고 협회 차원에서는 업계 공동으로 전시회 개최 등을 통해 시장창출 및 기술정보 등의 교류가 산업발전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표 #1)

[계측제어기기 산업의 세계시장 전망]

(단위 : 억불)

	'93	'96	'99	년평균성장률(%)
세계시장	591	688	725	3.5
미국	223	259	261	2.3
일본	60	69	82	5.3
독일	64	80	87	5.3
프랑스	30	31	32	1.1
이태리	28	31	32	2.3

(자료 : World Electronic Data Book)

(표 #1)

[우리나라 계측제어 산업의 수급 추이]

(단위 : 백만불)

		'91	'95	'96	년평균성장률(%)
수요	수내	87	148	110	4.8
	수출	376	1,160	952	20.4
합계		463	1,308	1,062	18.0
공급	생산	98	201	143	7.8
	수입	365	1,107	919	20.2
무역수지		278	959	809	23.8
비율	수출비용	88.7	73.7	77.1	-
	수입비용	97.1	95.4	96.5	-

주) 수출비중은 생산대비, 수입비중은 내수대비

(자료 : 전자산업진흥회)

## COMDEX FALL '97 한국공동관 설치

정보통신분야의 시장, 기술, 자본 등의 중주국이라 할 수 있는 미국시장의 개척을 위해 세계 최대 전문 전시회인 COMDEX FALL에 우리업체의 참여확대 유도와 중소기업들이 소규모로 참가함에 따른 인력 부족, 비용과다지출 등 공통애로를 타개하고 상호협조 보완을 통한 상품이미지제고와 전시성과의 극대화 도모를 위해 본회,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한국정보기술 연구원 등 3개단체가 오는 10월 개막되는 「'97추계컴덱스」 전시회에 웹인터 내셔널, 건캐드, 새롬기술 등 12개 소프트웨어 회사로 구성된 한국소프트웨어 공동관(가칭)을 마련키로 하였다.

참가업체 12개사가 모두 중소기업이라는 점을 감안, 참가비에 대한 재정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부스당 1천만원씩을 용자키로 하고 참가업체 가운데 서울에 소재한 회사에 한해서는 부스임차료 50%를 보조하기로 했다.

또한 이와함께 업체들이 희망을 할 경우 '97추계 컴덱스 폐막후 서울시가 운영하는 서울시청 로스엔젤레스 홍보관에 관련 제품의 전시 및 홍보를 주선할 계획이다.

'97추계컴덱스 전시장에 마련될 한국소프트웨어 공동관은 모두 16부스 규모이며 용자금과 임차료보조금을 본회 해외시장 개척기금(통상산업부)과 무역협회가 한국정보 기술 연구원을 통해 지급하는 정보 기술 연구기금에서 각각 엄출한 것이다.

세계 최대 컴퓨터 전시 행사인 컴덱스에 국내업체들이 독자부스 또는 공동부스를 마련한 적은 있지만 소프트웨어업체만을 위한 공동관은 처음이다.

## 전자산업 해외직접투자 전략세미나 개최

본회 국제협력과에서는 지난 2. 27일 본회 대회의실에서 관련업계 60여명이 모인 가운데 전자산업 해외직접투자전략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 세미나는 국내 전자, 정보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우리 전자업체들의 해외 진출 현치화 평가와 해외투자의 전략적 진출방안에 관한 것으로 해외투자전문가의 심도있는 분석으로 우리기업들의 효과적인 해외진출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다.

주제 : 한국전자산업 해외직접투자전략적 진출방안

발표자 : (대외경제 정책연구원 왕윤중 박사)

